

20세 청년에게 기부금 쏟아진 사연



▲ 사진=고펀드미 웹사이트

매일 약 18마일을 걸어서 출퇴근하던 한 스무 살 청년의 사연에 거액의 기부금이 쏟아졌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돈테 프랭클린(20)은 최근 자신이 요리사로 일하는 식당으로 출근하다 마이클 린이라는 남성의 차량을 얻어 타게 됐다. 린은 프랭클린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프랭클린이 이동 수단이 없어 집으로부터 약 9마일 떨어진 식당으로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린과 마주친 날에도 프랭클린은 출근 시간보다 세 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프랭클린은 매일 먼 거리를 걸어 출근했지만 지각한 적이 없다고 한다. 프랭클린은 고된 여정에도 “힘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계속 걸었다” 고 말했다.

프랭클린의 사연에 감동한 린은 페이스북에 이 사연을 올렸고, 이후 프랭클린에게 자동차를 마련해 주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졌다.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모금운동이 벌어진 지 6일 만에 당초 목표액인 2,000달러를 훌쩍 넘어선 4만6,650달러가 모였다.

또 자선단체 ‘마이 라이딩 버디스 오클라호마’는 프랭클린에게 최신형 자전거를 선물하기로 했다. 이 단체의 케리 폴린스는 “2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일하러 가기 위해 무더위 속에 걸어야 했다는 사실에 뭉클했다” 고 말했다. 프랭클린은 자전거와 모금에 대해 감사사를 표하며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정말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린은 “프랭클린 자신도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며 기뻐했다.

소원했던 아이 얼굴도 못보고

아기를 간절히 원했던 40대의 아르헨티나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멘도사주에 살던 플로레스는 결혼 직후부터 아기를 원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10년 넘게 인공수정을 거듭했다. 그러다 결국 45살이던 지난해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했다. 게다가 쌍둥이였다.

곧 엄마가 된다는 꿈에 설레던 그녀에게 가슴 졸이는 일이 생겼다. 임신 6개월 만에 코로나19에 걸렸기 때문이다. 플로레스는 복중 태아들이 잘못될까 각별히 조심하며 코로나19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특히 호흡곤란이 심해졌다. 상태를 지켜보던 병원은 결국 플로레스에게 제왕절개를 제안했다.

병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플로레스는 아들과 딸 쌍둥이를 출산했다. 아기들은 태어난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플로레스는 태어난 쌍둥이를 품에 안아 보지도 못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엄마와 쌍둥이는 영원한 이별을 맞았다. 파올라 플로레스(46)는 출산 열흘 만에 숨졌다.



▲ 사진=elbocon.pe

신생아들을 돌보는 한 간호사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지만 엄마의 얼굴도 보지 못한 쌍둥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면서 “아기들이 너무 불쌍하다.” 고 말했다.

병원 측은 “신생아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가족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건 아기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면서 “누구도 엄마의 빈 공간을 채우진 못하겠지만 코로나19 검사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아빠 등 가족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사무실서 우산 펴고 근무한 직원



▲ 사진=sina.cn

사무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CCTV)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며 우산을 펴고 근무해 해고를 당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사연이 화제다.

20대의 장 모 씨는 중국 선전시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일하면서 사무실 천장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 침해할 수 있다면서 2019년 6월 24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우산을 펴고 근무했다. 이에 회사 측은 장 씨의 행동이 근로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구두 경고와 서면 경고를 했지만 장 씨는 계속 우산을 펴고 근무했다. 이에 회사 측은 장 씨의 행동이 심각한 사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 노동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하지만 장 씨는 사측의 해고 통보에 대해 자신의 노동 권리가 침해당했다면서 배상금 30만 위안(약 5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제기 전에 “회사 상사들 중 상당수가 남성이다.”면서 “천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사생활을 엿볼 수 있고, 또 여름 옷을 입고 출근하면 속옷이 비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 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 행동을 지적해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고 항변했다.

밝은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속옷이 비치 모습도 CCTV에 촬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할 관할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최근 장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장 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